

농작물을 주제로 한 동요 만들기

제출자: 정우진
지도교사 : 이정상, 김수자

초록

이 논문은 농작물에 관련된 동요를 만들어 내는 작품 논문이다. 내가 논문을 쓰면서 음악 지식을 획득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동요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해주고 싶다. 동요를 만들기 위해서 학원도 다녀보고 민혜쌤 과의 개인 과외시간도 가졌다. 그렇게 동요를 만들어 냈다. 나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했고 대중들도 나의 동요를 즐거움을 느낀 것 같았다.

목차

I. 서론	4) '굴'
1. 논문의 동기	(1) 가사
2. 논문의 목적	(2) 곡 설명
3. 연구 방법	(3) 코드, 멜로디
II. 본론	(4) 악보
1. 동요	3. 작품 평가
1) 동요의 특징	1) 간단인 평가
2) 동요의 종류	2) 전문가 평가
2. 나의 노래	3) 나의 평가
1) '감자는 왜 심는지 모르겠어'	III. 결론
(1) 1절 가사	<참고 문헌>
(2) 곡 설명	<부록>
(3) 코드, 멜로디	1. 제작일지
(4) 악보	<감사의 글>
2)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1) 가사	
(2) 곡 설명	
(3) 코드, 멜로디	
(4) 악보	
3) '볶음밥'	
(1) 가사	
(2) 곡 설명	
(3) 코드, 멜로디	
(4) 악보	

I. 서론

1. 논문의 동기

학교에서 농사 작업장을 하다 보니 농사에 관심이 많이 갔다. 그리고 학교에서 기타를 치다 보니 음악에 관심이 갔다. 그래서 논문 수업 시간에 관심 있는 것들을 써보라고 해서 농사, 음악을 적었다. 나는 농사 or 음악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논문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정호 쌤이 농사에 관련된 음악을 만들어 보라고 추천해 주셨다. 생각해 보니 좋은 주제 이었다. 그래서 농사라는 주제로 어떤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다. 멧쟁이 토마토, 밀과 보리자라네 라는 동요가 떠올랐다. 나름 재미있고 농사의 과정, 농작물의 특징 들을 담은 유익한 동요였다. 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동요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농사, 농작물을 주제로 동요 만들기라는 논문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논문을 진행하다 보니 농사, 농작물을 주제로 동요를 만들려니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농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동요로 만들기 힘들었다. 그래서 농사를 제목에서 제외 시켰다. 그래서 농작물을 주제로 동요 만들기로 논문을 쓰게 되었다.

2. 논문의 목적

‘말과 보리가 자라네’ ‘멧쟁이 토마토’ 와 같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동요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음악적인 지식을 넓히고 싶다.

3. 연구 방법

1) 문헌을 참고하여 관련분야 지식 쌓기

백창우. <시를 노래하다> 우리교육(2005)

권정생, 백창우 <바보처럼 착하게 서 있는 우리집> 보리(2010)

2) 작곡, 작사하기

(작사, 작곡하는 데에 있어서는 민혜쌤 한테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그리고 1달정도 학원에서 화성학도 배웠다)

3) 악보 만들기

“뮤직스코어” : 주변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 줘서 쓰게 되었다.

4) 녹음하기

“로직” : 오래 전부터 내가 사용하던 프로그램

5) mp3 파일로 변환하기

“로직” : 오래 전부터 즐겨 쓰던 프로그램

6) 간디인, 전문가 평가받기

제천간디학교 재학생 평가자 : 오승택(14학번), 전현호(16학번), 박연우(16학번), 이종은(17학번), 황석연(16학번), 정재민(16학번)에게 평가 받음.

전문가 평가자 : 염경아(동요 작곡가, 한국동요작곡가 협회 연구위원), 류정식(동요 작곡가), 조원경 (동요 작곡가)에게, 평가 받음.

II. 본론

1. 동요

1) 동요의 특징

어린이들의 꿈과 의욕을 담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에 의해 불리는 어린이들의 노래.1)동요는 민요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창조되었고 또 주로 어린이들 속에서 많이 불리면서 다듬어져 내려오는 노래인 것만큼 주제내용과 표현수법, 선율정서와 악곡구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요와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요는 우선 주제내용에서 유희생활을 반영한 노래들이 많고 모든 노래들이 유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요는 또한 주제내용이 단순하고 표현에서 직선적이다. 동요에는 민요처럼 생활을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반영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숨바꼭질’과 같이 단순하게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생활 그 자체만을 평면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동요들은 내용이 단순하며 표현에서 직선적이다. 동요는 또한 시가와 악곡의 구조형식이 짧고 간결하다. 어린이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노래이기 때문에 시가와 악곡의 구조형식도 모두 자연스럽게 짧고 간결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요의 간결성은 무엇보다 시가형식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동요의 시가는 민요처럼 절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여러 개의 분절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단절가로 되어있다.

해야해야 나오나

물먹고 장고치고 나오나

1) [네이버 지식백과] 동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4476&cid=46643&categoryId=46643>

보는바와 같이 이 동요는 한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동요의 간결성은 또한 선율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요 가운데는 구성 음이 3개로 이루어진 노래들이 많으며 선율리듬에는 잔가락이 적고 매우 단순하다. 동요의 선율은 대체로 악단이나 악절의 범위를 넘지 않는데 선율진행은 처음에 제시된 두 소절을 그대로 또는 약간씩 변화시켜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부터 동요에서는 후렴구들이 거의 없다. 이것은 민요와 구별되는 본질적 측면의 하나이다.

동요는 또한 선율정서에서 지방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동요 가운데는 ‘달아 달아’, ‘따복녀’, ‘숨박곡질’ 등과 같이 자기의 독자적인 균을 이루고 전국적으로 불려진 노래들이 적지 않다. 이런 노래들은 민요 ‘아리랑’처럼 조식, 음조, 장단, 선율발전수법 등에서 지방적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는다. 이것은 동요가 민요처럼 지방에 따라 음악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동요에 지방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는 것은 주요하게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향토적인 감정보다도 공통적인 동심세계가 더 큰 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다.²⁾

2) 동요의 종류

(1) 전래 동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내려온 동요이다.

대표적인 동요들은 도깨비 뺨스, 섬집 아기, 두껍아 두껍아,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등이 있다.

전래동요의 특성을 들면, 첫째 리듬을 그 생명으로 한다는 점이다. 곧, 한국의 전통적인 다른 가요와 같이 4·4 내지 3·4조의 기본 운율(韻律)을 지니면서도 특히 4·4조 리듬에 더욱 철저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리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래동요는 같은 내용의 시행(詩行)을 되풀이하는 반복법이 대부분으로, 1행은 2행으로 2행은 4행으로 발전해간다.

둘째, 전래동요에는 계급의식이 없다. 어린이들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노래한다. 그들의 주변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 풀이나 짐승이나 새, 그리고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무궁한 소재를 아무런 비판이나 어떤 철학도 암시하지 않고 노래 부르는 것이다.

2) [네이버 지식백과] 동요의 특징 (조선허토대백과, 2008., (사)평화문제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62864&cid=58101&categoryId=58101>

셋째, 진(眞)·선(善)·미(美)를 이상으로 삼는다. 희로애락은 있되, 증오나 추악이 없는 때 묻지 않은 세계이다. 이와 같이 전래동요는 다른 구비적(口碑的)인 가요와 비슷한 형식을 갖춘 반면에 그 내용은 상이한 것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이 고장에 서 저 고장으로 전해지면서 이어 내려왔다.³⁾

(2) 창작 동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창작해 만든 동요다.

대표적인 동요로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야, 나처럼 해봐요 등이 있다.

한국 창작동요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1923년 방정환이 제창한 어린이문화운동이 색동회에 의해 전개되자 윤극영은 색동회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빼앗긴 이 땅의 어린이에게 “아름다운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동요를 창작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부르게 하자.”고 주장, 노래 단체인 ‘따리아회’를 서울에서 조직하였다.⁴⁾

2. 나의 노래

1)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1) 가사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맛도 없고 껍떡해
껍질은 왜있는지 모르겠어
맛도 없고 까기도 귀찮아

오늘간식은 햄버거야
처음 보는 튀김도 같이 있네
튀김을 한입 먹어보니
너무 너무너무 맛있어

엄마 이튀김이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3) [네이버 지식백과] 전래동요 [傳來童謠]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478&cid=40942&categoryId=33002>

4) [네이버 지식백과] 동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4476&cid=46643&categoryId=46643>

00아 그 튀김은
감자로만든 거란다

(2) 곡 설명

학교 노작을 할 때 감자를 정말 미워하고, “맛도 없는걸 왜 키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나와, 감자튀김을 즐겨먹던 나의 모습이 스쳐지나갔다. 그 모습을 곡으로 만들면 ‘농작물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 라는 훌륭한 교훈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곡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훈이 와 닿게 곡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요에 소소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00아 그 튀김은’ 이라는 가사 ‘00’에 누구의 이름이나 갖다 붙여서 부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3) 코드, 멜로디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일단 멜로디 라인은 먼저 만든 후 이 곡에 어울릴 것 같은 코드 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 하게 된 코드 진행이 C-Dm-F-C 코드진행이다. 곡을 마무리 할 때에는 곡 마무리 코드진행으로 흔히 쓰이는 2-5-1 코드진행에서, 대리코드를 사용해 4-5-1 진행으로 마무리 하였다. 멜로디는 조금 우울한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약간의 우울한 느낌이 가사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 그대로 진행 하였다.

(4) 악보

2)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1) 가사

감자를 키우려면 어떡해요
흙을 파고 감자를 넣으렴
감자를 넣은 다음 뭐를 하죠
흙을 덮고 물을 뿌려주자

1주일 뒤에 가보니
조그마한 새싹이 자랐어요
언제쯤 수확 할 수 있을까요
100일 뒤에 수확할 수 있단다.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C Dm F C
 감 자 를 왜 심 는 지 모 르 겠 어 맛 - 도 없 - 고 퍽 퍽 해
 오 늘 - 간 - 식 은 햄 버 거 야 신 기 한 튀 김 도 같 이 있 네

5 C Dm F G C
 껌 질 은 왜 있 는 지 모 르 겠 어 맛 도 없 - 고 까 기 도 귀 찰 아
 튀 김 을 한 - 입 - 먹 어 보 니 너 무 너 - 무 너 무 - 맛 있 어

10 C Dm F C
 엄 마 이 튀 김 이 뭐 에 요 - 정 말 맛 있 어 요

14 C Dm F G C
 0 0 아 - 그 튀 김 은 감 자 로 만 든 거 란 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나는 튀김을
 먹을 수 있겠군요

(2) 곡 설명

원래는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2절이었다. 하지만 가사와 제목이 너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가사의 의도가 너무 다른 것 같아 다른 곡으로 분류하기 위해 제목을 바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동화책 시리즈같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동요라는 것이 나름 괜찮은 설정인 것 같다. 이 동요는 유익한 동요를 만들겠다는 나의 목표가 있어서 시도 해본 곡이다. 감자를 키우는 과정을 재미있고 재치 있게 표현해 보고 싶었다. 감자 키우기 설명서에 멜로디와 약간의 스토리를 붙인 느낌의 동요라고 할 수 있다.

(3) 코드, 멜로디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일단 멜로디 라인은 먼저 만든 후 이 곡에 어울릴 것 같은 코드 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 하게 된 코드 진행이 C-Dm-F-C 코드진행이다. 곡을 마무리 할 때에는 곡 마무리 코드진행으로 흔히 쓰이는 2-5-1 코드진행에서, 대리코드를 사용해 4-5-1 진행으로 마무리 하였다. 멜로디는 조금 우울한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약간의 우울한 느낌이 가사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 그대로 진행

하였다.

(4) 악보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C Dm F C
감 자 를 키 우 려 면 어 떡 해 요 흙 - 을 파 - 고 감 자 를 널 으 려
일 주 일 뒤 - 에 - 가 - 보 니 조 그 만 새 - 싹 자 랐 어 요

5 C Dm F G
감 자 를 심 은 다 음 뭐 를 하 죠 흙 을 덮 - 고 물 - 을 - 뿌 려 주
언 제 즙 수 확 할 수 있 을 까 요 백 일 뒤 - 에 수 확 할 수 있 - 단

9 C C Dm F C
자 다 기 다 리 고 기 다 리 던 그 날 이 찾 아 왔 어 요

14 C Dm F G C
드 디 어 나 는 뭘 김 을 먹 을 수 있 겠 군 - 요

3) 볶음밥

(1) 가사

동글동글 양파
땅속에 사는 감자

울퉁불퉁 파프리카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길쭉 초록 대파
맨들 맨들 계란

증기 폭폭 쌀밥
맛있고 짹짹 스펀

(2) 곡 설명

작은 동물원 이라는 동요를 듣고 영감을 받아 가사를 썼다. 원래의 목적은 농작물들의 특징을 재미있게 가사로 표현 하는 것 이었는데 어찌다 보니 내가 생각한 농작물들이 대부분 볏짚 재료로 사용 되는 것들이어서 이런 제목이 탄생했다. 이 곡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귀여운 단어들 많이 넣으려고 애썼다. 사람들이 볏짚 재료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 노래를 외워서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3) 코드, 멜로디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라는 곡과는 다르게 코드진행부터 정하고 멜로디를 짜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람들이 외우기 쉽도록 최대한 멜로디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곡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체 곡 길이도 짧게 했다. 코드진행은 민혜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G-Am-Bm-G 코드진행을 사용하였다. 최대한 간단하고, 외우기 쉬운 곡을 만들고 싶어서 멜로디, 코드진행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 사용하였다.

(4) 악보

볶음밥 재료들

G C D C D7
동글 동글 양파 땅속에 사는 감자 -
길쭉 초록 대파 맨들 맨들 계란 -

5 G C D G
울퉁불퉁 파프리카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증기 북북 쌀밥 맛있고 짭짤한 스펀지

4) 글

(1) 가사

굴이랑 함께면 다좋아
어디든지 다좋아
굴이랑 함께면 두렵지 않아
추운 겨울도 두렵지 않아

귤이랑 함께 하고 싶어
영원이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헤어져야해
다음 겨울에 또보자

(2) 곡 설명

친구들과 겨울에 찜질방에서 귤을 까먹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내가 겨울에 귤을 까먹으며 느꼈던 것 들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가사를 써 보았다. 이 동요에서는 귤은 겨울이 제철이 라는 유익함을 더하고자 했다.

(3) 코드, 멜로디

뭔가 재미난 코드진행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우연히 ‘라면과 구공탄’ 이라는 동요를 듣게 되었는데 ‘라면과 구공탄’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드진행이 마음에 들어서 ‘라면과 구공탄’의 코드진행을 조금 모방하였다. 원래 ‘라면과 구공탄’ 곡 코드진행은 A-E-E-A로 진행되지만 나는 이 코드진행을 A-D-D-A 진행으로 바꿔서 코드를 진행시켰다. 구지 코드진행을 그대로 베껴오지 않고 변형을 시킨 이유는 멜로디를 작성할 때 ‘라면과 구공탄’의 멜로디가 생각나 멜로디를 만드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지 않았다. 멜로디는 가사랑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약간의 우울한 느낌과 귤이라는 작물의 상큼함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다.

(4) 악보

귤

A D D A

귤 이 랑 함 께 면 다 - 좋 아 - 어 디 - 든 지 다 - 좋 아 -
 귤 이 랑 함 - 께 하 고 싶 어 - 영 원 히 함 께 하 고 싶 어 -

5 A D D A E A

귤 이 랑 함 께 면 두 령 지 않 아 추 운 겨 울 도 두 령 지 않 아
 하 지 만 이 제 는 헤 어 져 야 해 다 음 겨 울 에 또 - 보 - 자

3. 작품평가

1) 간디인 평가

평가단 대부분 음악 적당히 해본사람들로 선정 했다. 평가는 2020년 2월 메일로 주고받았다.

오승택 - 14학번

최소한의 성의는 담았으면 좋겠다. 곡도 너무 짧고 멜로디도 다 비슷비슷 하고.. 이런 건 평가할게 없음, 혹은 평가 할 수 없음.

전현호 - 16학번

4개의 곡 중에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와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이 2곡이 이어지는 곡이라도 들었는데 곡의 멜로디가 많이 비슷해서 서로 멜로디가 달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굴의 도입부가 감자의 도입부와 같은 느낌을 받아서 '굴' 만의 도입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사는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이해도 잘 될 것 같아서 어린아이들이 듣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곡 전부 멜로디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연우 - 16학번

볶음밥 재료들 : 증기 폭폭 쌀밥~ 증기가 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는데 동요의 대상인 어린이들이 증기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지 모르겠다. /김이/모락모락/쌀-밥/ 이거 좋은 것 같다. 스펀이 잘 안 어울린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동요는 다 정우진의 동요로 판이 바뀔 것 같은데 스펀은 뭔가 안 어울린다. 가사를 노래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맛있고/짹짹한/햄까지~/ 고려 해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멜로디 등 곡 구성은 귀엽고 심플해서 확실히 좋은 동요 같다.

굴 : 귀엽다.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좋다. 초반 2초까지 감자를 시리즈인줄 알았다. 나 같은 막귀가 들으면 헛갈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겨울에 먹던 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떠올려 볼 수 있는 가사였다. 좋았다.

총평 : 전체적으로 곡 구성은 좋은 것 같다. 가사도 그렇고 귀엽고 따라 부르기 쉬운 단어선택, 재치 있는 가사 정말 '동요' 이었다. 진행속도는 느렸지만 이 곡들을 만들고 가사를 쓰며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는 우진 이의 모습이 그려져 좋았다^^

이종은 - 17학번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 멜로디 부분에서 흥이 나도록 잘 구상시킨 것 같다. 마치 흙밭에서 구르는 감자를 연상케 한다. 노래 가사도 전반적으로 유아가 잘

듣고 따라 부르기에 적합한 것 같다. 특히 후반부에 직접 가사에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부분이 좋고 임팩트 있다.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 멜로디는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와 동일하고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는 가사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감자를 심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곡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수확'이라는 단어가 동심을 나타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았다.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곡의 후속작 콘셉트로 만든 부분에서 매우 인상이 깊었다.

볶음밥 재료들 : 전체적으로 노래가 되게 귀엽다. 노래를 들으니 아기자기한 채소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떠오른다. 재료 하나하나의 특징을 잘 잡은 것 같다.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

꿀 : 겨울 느낌이 난다. 노래가 제일 중독성이 있고 잘 만든 것 같다. 그렇지만 꿀의 상큼함과 꿀을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꿀과 작별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서 아쉽다.

황석연 - 16학년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 매우 오래전에 나온 곡이자 가장 유명한 곡인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다른 곡들의 멜로디 베이스에도 기여가 컸던 것 같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익숙한 곡이고 어디에 가져가도 손색없을 뎀썸은 동요. 가사 끝부분이 유동적인 것이 특이해서 마음에 든다.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의 후속작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아쉽다. 물론 그걸 노리고 만든 걸 수도 있지만. 아이는 감자튀김을 먹어 본 이후로 감자를 정말 좋아하게 된 모양이다.

볶음밥 재료들 : 가사가 아기자기해서 좋다. 재료 하나하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며 작사했을 논문 저자의 모습이 떠올라 호뭇하다. 멜로디도 가사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꿀 : 멜로디를 듣자마자 든 생각 - '아쉽군, 우려먹긴가?... ..? 나쁘진 않군, 가사에는 나를 어울리는 것 같아.' 가사는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다. 어떻게 저런 귀여우면서도 깊은 가사를 썼는지 신기하다.

총평 : 멜로디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모든 곡이 다 조금씩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그래도 '동요'로써의 단순하면서도 신나는 박자가 마음에 들었다. 가사는 정말

너무 귀여워서 조금 놀랐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 악보의 오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곧치면 돼'하고 담백하게 답변해준 논문저자의 심플함은 마음에 들었다.

정재민 - 16학번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 감자 두곡은 일단 스토리를 잘 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 공개 했을 때 우리가 맨날 부르고 신곡을 기다릴 만큼 중독성 있게 잘 만든 것 같지만 약간 뭔가 아주 어린 친구들이 부르기 보다는 조금 수준 높은 초등학교 이상 친구들이 이해하고 부르기 편한 노래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볶음밥 재료들 : 외우기도 편할 거 같고 단순하고 쉽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곡은 딱히 장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꿀 : 일단 멜로디 자체가 가사를 몰라도 겨울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캐롤 느낌이 풍기고 조금 필요이상으로 풍기는 것 같기도..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만든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평 : 멜로디는 괜찮은데 약간 모든 노래가 성향이 비슷하다고나할까요.. 특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가사 쪽으로 가서 이것은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파프리카같이 어린아이들이 접하지 못했을만한? +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음식? 스펀, 감자튀김, 햄버거 같은 것 들이 약간 동요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2) 전문가 평가

'한국동요작곡가협회'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곡가님들의 프로필을 보고 동요들어 본 후 몇몇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리고 평가 해주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음악파일을 보낸 후 메일로 평가를 받았다. 메일 주소는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었다.

염경아 동요 작곡가 - 한국동요작곡가 협회 연구위원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 우선 가사에 대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곡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곡의 통일성이나 가창 자가 부르기에 편한 쪽을 생각해 본다면 3마디, 7마디의 부분이 동형진행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맛도 없고'라는 가사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게 표현되어 통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 부분을 한 옥타브 올렸으면 좋겠다.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와 같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첫 곡처럼 비슷한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볶음밥 재료들 : 재미있는 곡입니다. 음역대도 편안하고 짧고 쉬우면서 재미있습니다. 다만, 가사가 가지는 특징을 리듬에서 최대한 표현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동글동글’이라는 가사는 꼭 4분음표의 리듬보다 8분 음표 둘, 사분음표 8분 음표 둘, 4분 음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더욱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절에서 ‘맨들맨들’이라는 가사의 표현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반질반질’이라든지, ‘동글동글’이라든지..아무튼 어감 예쁜 가사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꿀 : 마지막 마디에서 음을 위로 올리면 좋을 듯합니다. 가운데 ‘도’ 아래로 내려가는 음은 ‘시’까지가 최적이고 ‘라’까지 내려가는 곡은 아주 드물기도 하고 어린이들 음역대가 표현하기에 다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류정식 동요 작곡가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 어린이 음역에 맞게 쓰여 졌고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좋네요. 다만 3,7마디의 당김음 리듬은 좀 어색합니다. 이 리듬을 사용하고 싶다면 4/4박자에서는 리듬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7,8,9,마디에서는 역지로 1마디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에서 10마디, 또 제일 마지막 두 마디에서 라(a)음에서 도(a)로 가고 있는데 종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율이 꼭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곡에서는 정확한 종지가 더 어울리겠네요.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 선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위곡과 평가가 같습니다. 추가로 2절에서 가사가 늘어날 때는 악보에 리듬을 추가로 그려주어야 합니다.

볶음밥 재료들 : 곡의 전체적인 구성이 좋습니다. 쉽게 익힐 수 있네요. 이 곡도 2,8마디에서 당김음 리듬 표기를 바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7마디의 화성이 Bm 보다는 D7이 좋을 것 같습니다.

꿀 : 2,4 마디 리듬의 표기가 바르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마지막 음인

라(a)음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총평 : 음악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요의 전체구성은 좋습니다. 어린이 음역에도 잘 맞고 가사도 좋습니다. 다만 곡의 선율 진행이 진부합니다. 들어서 좋아야 부르기도 좋습니다. 앞으로 선율 쓰는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비화성(화음 밖의 음)을 통해 선율을 구성하면 다른 곡과 차별화 된 예쁜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도 지금 I, IV, V, ii 이렇게 나오는데 화성학 공부를 통해 화성의 다양성을 곡에 표현해야 합니다.

조원경 동요 작곡가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가사는 작사자의 의도가 있을 테니 내용의 흐름에 큰 무리가 되지 않으므로 패스하고 감자에 관련된 두 곡이 멜로디가 같네요? 8마디의 음정은 '라'에서 '솔'로 음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8마디 짜기 G코드이니 그 마디의 화성이 명확한 것이 좋겠지요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가사가 재미있네요. 멜로디도 가사에 잘 맞게 되어있어요 코드 진행을 minor 코드 말고 Major로 하면 명랑한 느낌을 더 줄 수 있어요.

볶음밥 재료들

가사에 굴의 생김새나 특징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2마디와 6마디는 같은 멜로디가 좋을 것 같아요

굴

가사에 굴의 생김새나 특징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2마디와 6마디는 같은 멜로디가 좋을 것 같아요

총평

우선 동요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작사, 작곡, 미디 시퀀스 작사는 쉽게 어필되고 공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랩의 라임을 맞추듯 하고 의성어 의태어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3) 나의 평가

나의 동요들 다 마음에 들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문 작품이 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뭐라고 해야 할까.. 전문성이 부족한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 곡들이 다 짧다. 곡이 짧은 만큼 남들과 비교 해 보았을 때에도 작품에 소모한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솔직히 승택이형 평가를 듣고 조금 뜨끔 했다. 누가보아도 터무니없이 짧고 반복적인 곡들인데 그렇다고 많은 작품들을 만든 것 도 아니고 3곡 만들었다. 양심이 찢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동요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동요는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신나는 동요가 없어 아쉽다.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첫 작품이어서 엉망진창이다. 가사의 흐름도 아주 엉망에다가 되도 안는 가사 어떻게든 꾸역꾸역 끼워 넣어서 완성 시켰다. 특히 ‘오늘 간식은 햄버거야’ 나오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뜬금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이곡을 만들 당시에는 감자튀김을 먹고 농작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스토리, ‘농작물의 소중함’이라는 교훈을 꼭 남기고 싶었기 때문인지 가사의 흐름이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농작물의 소중함이라는 교훈을 전달하려 했던 것도 실패 한 것 같다. 재미난 동요, 교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한 꼴이 되었다. 멜로디랑 코드진행은 아주 평범한 것 같다. 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축 처지지도 않는다. 별다르게 특별함이 없는 곡 인 것 같다.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어

멜로디는 ‘감자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 같이 별다르게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신나는 느낌이 과하게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가사는 너무 유익함만을 추구 하면서 만들다 보니 가사에 딱딱하고 동심이 없는 느낌이 있어서 아쉽다. 이 곡도 유익함과 재미난 동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한 꼴이 된 것 같다.

볶음밥 재료들

‘감자들’ 시리즈를 작곡하면서 느낀 것인데 내가 너무 동요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곡은 ‘비행기’ 와 같이 정말 단순한 동요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다. 그래서 원래는 꼭 동요에 후렴을 넣으려고 했었

는데 이곡에는 후렴을 넣어보지 않았다. 다행히 의도대로 멜로디도 아주 단순, 반복적이고 가사도 별 뜻 없고 흐름이 어색하지 않게 가사를 잘 쓴 것 같다. 하지만 너무나 순한 나머지 너무 할 말이 없다는 점이다. 그냥 생기다 만 동요 같다.

꿀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곡이다. 나머지 곡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했는데 이곡은 유일하게 단순함과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잘 조화시킨 동요인 것 같다. 아주 가사도 연령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공감 할 수 있게 잘 만든 것 같고 멜로디도 가사와 아주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동요에 유익함을 더하기 위해 어린 친구들한테 꿀은 겨울이 제철 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2절 가사는 어린 친구들이 듣고 ‘꿀이랑은 왜 겨울에 헤어져야해?’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한 뒤 꿀은 겨울이 제철 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자 그런 가사들을 썼다. 다행히 생각보다 가사의 흐름이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린 친구들이 내 동요를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어쨌든 나름 재미난 동요를 만든 것 같다.

III. 결론

동요 3곡을 만들었다. 논문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라면 남들한테 나의 형편없는 동요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무섭고, 두려웠다. 어떻게든 극복해내고 싶은 부분이었기에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 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자신 있게 나의 작품들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또 돌렸다. 그렇게 나는 결국 완벽하게 극복해내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무뎠던 것 같다. 논문을 쓰면서 성장 했다고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을 이렇게 마무리 하게 되어 아주 아쉽다. 나는 왜 3학년 때 논문을 끝내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3학년 때 논문을 끝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여버린 것인지 안타깝다.

그리고 나는 응원해준 모든 분들한테 죄송하다. 괜히 시간만 질질 끌다가 이게 뭐하고 있는 것인가 싶다. 시간을 끈만큼의 훌륭한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논문을 작성했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다. 선생님, 간디인 들이 나의 논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너무 두렵다.

<참고 문헌>

1. 참고서적

백창우. <시를 노래하다> 우리교육(2005)

권정생, 백창우 <바보처럼 착하게 서 있는 우리집> 보리(2010)

<부록>

2018년 4/ 25

오늘은 논문 계획서 발표를 했다.
정말 긴장되었다. 앞으로 논문 화이팅!

2018년 5/ 2

오늘은 논문 계획서 발표 때 피드백 받을 것을 보았다. 앞으로 논문 열심히 써야
지

2018년 5/ 3일

오늘은 병곤 쌤이 추천해준 백창우 씨의 책을 찾아보았다. 도서관에 있으면 봐야
지

2018년 5/ 9

오늘은 집에서 동요를 들었다
생각보다 어려워 보였다.

2018년 5/ 16일

오늘은 도서관에서 백창우 작가님의 시를 노래하다 라는 책을 빌렸다.
열심히 읽어야지

2018년 5/ 23일

오늘은 드디어 저번 주에 빌린 백창우 작가? 님 책 1권을 다 읽었다.
별로 도움 되는 건 없었다.

2018년 7/ 3일

오늘은 논문 작곡을 시작을 했다.
잘됐으면 좋겠다.

2018년 7/7일

작곡을 하다 보니 내 노래가 너무 더러웠다.
깔끔하게 포기 했다.

2018년 7/25일

작곡수업 첫날이었다.
코드를 배웠다.

도움이 많이 될거 같다.
기대가 된다.

2018년 8/1일
학원이 쉬는 날이어서 학원을 가지 않았다.
다음 주가 기대된다.

2018년 8/8일
m코드와 M코드를 마스터 했다.
이제 피아노도 조금씩 손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
다다음주 까지 곡 하나를 연습해오라고 하셨다.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다.

2018년 8/15
곡을 연습하는데 나름 재미있었다.

2018년 8/22
7코드를 배웠다.
알기 전에는 어려울 거 같았는데 알고 나니 별거 아니었다.

2018년 8/23
7코드 연습을 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쉬운데 손가락이 따라 가주지 못했다.

8/24
마지막 수업 이였다.
대리코드, 스케일을 배우고 수업을 끝냈다.
아쉬웠다.

2018년 8/29
개학해서 학교 왔다.
작곡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학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작곡을
했다.
어렵지 않았다.

2018년 9/1
8마디짜리 코드를 짜고 막혔다.

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 이였다.

2018년 9/8

1주일 정도 동요들을 들으면 내가 짜놓은 코드에다가 드럼도 넣어보고 오르간도 넣어보고 별걸 다 넣어 봤다. 나름 곡이 멋있게 탄생해가고 있었다.

갈 길이 멀다.

이제 코드를 좀 더 넣고 멜로디를 붙일 예정이다.

2018년 9/15

많은 동요 악보들을 참고하면서 멜로디도 나름 붙이고 코드 진행도 거의 다 짰다. 가사를 써야 되는데 쉽지 않았다.

중간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18년 9/17

어제 중간발표 ppt를 제출했다.

내가 이때까지 해온 곡을 들려줄 생각을 하니 너무 떨렸다.

2018년 9/18

중간발표를 해보니 정말 내가 해온 것들이 너무 없었다.

2018년 9/29

가정 학습때 게임만 했다.

논문쓰기 싫다.

2018년 9/30

학교 도착했다.

한결이 형이 집에서 가져 온 백창우 선생님의 책을 추천해줬다. 시들과 악보들이 가득했다.

어차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읽어보기로 마음 먹었다.

2018년 10/1

책을 읽었다.

책을 보니 백창우 선생님이 권정생 시인님의 시를 악보로 그린걸 책에다 넣은 것 같았다.

그 책을 보고 나도 시를 쓰고 그거를 동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작정 시를 써보기로 마음먹었다.

2018년 10/2

시 쓰는데 쉽지가 않았다.

비유를 하는 것이 힘들었다.

이번 주에 작품발표가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든 시만 잘 써보면 곡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근데 시만 잘써 보는게 힘든 거 같다.

어떻게 시를 써야할지 감이 안 잡힌다.

2018년 10/5

친구들은 작품 준비하는라 바쁘다.

나는 어제와 엇그제 풋살 대회를 갔다 와서

작품을 해놓은 것도 없고 풋살 대회가 없었더라도 내일까지는 작품을 완성하지 못 했을 것이다.

시를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다.

내가 쓴 시를 노래로 만들고 사람들이 다 들을 생각을 하니 너무 부담스러웠다.

앞으로 잘할 수있을지 걱정이다.

2018년 10/23

오랜만에 일지를 쓴다.

오늘은 최종 발표를 했다.

이때까지 민혜 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내가 만든 동요를 들려 줄수 있어서 좋았다.

쪽팔려서 혼 나는줄 알았다.

2018년 11/6

오랜만에 일지 쓴다.

피곤하다.

2018년 11/14

오랜만에 일지를 쓴다.

작품 일지를 안 쓰고 있다.

귀찮다.

그리고 오늘 2번째 곡을 민혜쌤 한테 들려 드렸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다.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2차는 포기다.

2018년 11/19

본문을 쓰고 있다.

쓰기 싫다.

논문은 언제 끝날까

2019년 9월 14일

논문을 안 쓴지 10개월이 지났다.

아마 작년 11월 저 일지를 쓰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논문을 못 끝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참 한치 앞도 알 수없는 세상이다.

2019년 12월 26일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 하려고 한다. 의욕이 정말 없지만 정신력으로 꼭 버텨서 논문을 완성하고 말 것이다.

2019년 12월 29일

의자에 앉기 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막상 앉으면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막막하다. 본문이란 것은 도대체 어떻게 , 어느 정도 써야하는지 모르겠다. 2시간동안 앉아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오늘 정신력으로 잘 버텨낸 것 같아서 뿌듯하다. 내일은 도저히 쓸 용기가 나지 않는다. 큰 일이다. 이제 축구 보러 가야겠다.

2020년 1월 8일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드디어 논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게임하러 가려고 한다.

2020년 1월 29일

이제 진짜 논문의 끝이 보인다. 빨리 다써버리고 싶다.

2020년 1월 30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 분들과 대중들한테 나의 동요를 들려줘야 하는데 너무 쑥스럽다. 지금은 전문가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고민 중이다. 그리고 내일 전문가 분들과 간디 평가단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볼 예정이다. 떨린다. 아 참 전문가 분 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2분정도 생각해놓았고, 간디 평가단 구성원은 아직 생각 안 해봤다. 내일 생각해 보려고 한다.

2020년 2월 6일

전문가 분들한테 메일을 보냈다. 생각보다 메일 확인을 잘 안하셔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2020년 2월 7일

나름 많은 간디인 들에게 평가를 받았다. 다들 평가를 부탁하니 한 치의 망설임도 평가를 해 준다고해서 고마웠다.

2020년 2월 9일

전문가 분들이 평가해주신 것들을 메일로 받았는데 뭔가 내가 생각한 평가가 아니라 본문에 넣기 좀 애매한 느낌이 든다. 난감하다.

<감사의 글>

저의 논문에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